Uijeongbu Art & Culture

의정부예술

문화를 드리우고 예술을 피워내는 의정부예총

Vol.03

CONTENTS 2021 ART & CULTURE

권두칼럼

의정부예총 조직도 ---- 05
의정부예총회장 권두칼럼 ---- 06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리모델링 준공식 ---- 08

협회별이야기

국악 ---- 12
무용 ---- 20
문인 ---- 30
미술 ---- 36
사진 ---- 44
연극 ---- 50
연예 ---- 58
음악 ---- 64

의정부문화예술

기고문 ---- 70

전시부문 작품

문인작품 ---- 74
미술작품 ---- 80
사진작품 ---- 84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조직도

의정부지회장
김원기

고문
류후선 [1대]

고문
이흥재 [2-4대]

고문
최명섭 [7-8대]

수석부회장
이미숙

부회장
유준식

부회장
김현주

감사
권기문

감사
마해용

사무국장	이동수
사무간사	윤유미

국악협회
지부장직무대행 부지부장
윤 현 숙

무용협회
지부장
이 미 숙

문인협회
지부장
김 문 희

미술협회
지부장
임 응 섭

사진협회
지부장
조 한 규

연극협회
지부장
유 준 식

연예협회
지부장
박 영 길

영화협회
지부장
이 경 윤

음악협회
지부장
김 현 주

권두칼럼

문화예술은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중심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장
김 원 기

문화예술은 어떤 방식이 되었든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반영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메시지를 담은 오브제로 표현되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되고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때에는 지금 내 안에 담겨있는 시간의 기록들을 되돌아볼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그 시간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문화예술이고,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가 확인되는 매개체이며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문화예술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하며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회적인 흐름 속에 문화예술을 위한 방향 설정이 시급하고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평상시에도 힘들었던 문화예술이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현실은 다른 많은 정책의 뒤안길에 서 있다.

랜선으로 보는 온라인 콘텐츠들로 문화예술이 실현되고 있지만, 오감을 통해 경험하는 현장성과 동시성, 공감성이 중시되는 예술이 본질인 만큼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고찰도 중요하다. 또한 대중매체에서는 상업성이 큰 스타 마케팅 속에서 우리 순수 문화예술은 양극화되어 더욱더 힘들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생겨난다.

문화예술 생태계에선 생계를 위협받고 창작에 대한 갈증도 심해지면서 충분한 지원도 되지 않는 사회적인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책임감은 누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난제와 사회적 인식에 관해서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질이 변치 않는 문화예술이 우리에게는 건강하고 힘찬 희망을 주는 일이기에 우리 모두 본성에 따라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그때는 좀 힘들었어, 하지만 우리는 이겨내고 한발 더 나아간 시기였어'하는 한 문장으로 기억되는 시간으로 서로서로 도우면서 다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리모델링 준공식

2021년 12월 11일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증축 리모델링 준공식을 의정부예총 주관으로 개최했다.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는 2002년 준공되어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가 진행된 의정부 대표 야외 문화공간이다. 의정부예총이 의정부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만 준공 후 18년이 지나면서 무대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누수 발생 등 노후화가 심해서 보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정부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 2월 설계용역을 실시했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했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기존 부속 건물을 증축해 대기실, 분장실, 다목적강당, 물품 보관 창고 공간을 확보하고 야외무대 재도색, 바닥 보수, 천장 보강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무대 공간으로 새단장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상설야외무대가 새단장을 한 만큼 앞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쳐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의정부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 된 만큼 상설야외무대가 문화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원기 예총 회장은 “예총 회장으로서 상설야외무대 정비가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 한다”고 밝히며, “상설야외무대를 통해 주민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문화도시 의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
증축(리모델링) 준공식
2021. 12. 11(토) 의정부시예총

2021. 12. 11(토) 의정부시예총

2021. 12. 11(토) 의정부시예총

2021. 12. 11(토) 의정부시예총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 증축(리모델링) 준공식

협회별이야기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연극협회

연예예술인협회

음악협회

국 악

2021년 국악협회 이야기

의정부 국악협회는 의정부 한국국악협회로 1989년 개원하여 1992년에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의정부지부로 인준 받아 정회원 33명과 의정부 국악협회 예술단원들이 함께 좋은 공연을 보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며 국악의 연구와 계승발전에 힘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30여 년간 300여회의 크고 작은 공연을 해오면서 한 번도 불협화음 없이 국악협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국악협회 주관으로 꿈꾸는 아리랑 동아리 단체와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70명제한 대면 공연으로 협연을 하였고, 3월에는 현사랑 가야금 합주단과 역시 국악협회 주관으로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70명제한 대면 공연으로 협연을 하였으며 6월에는 시민을 위한 국악축제 (꽃비 · 닮 · 소리)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역시 70명제한 대면공연으로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10월 24일에는 제23회 의정부 국악협회 정기공연(태평가연심)을 영상 촬영하여 유튜브등 SNS에 게재하여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하루빨리 정상적인 시기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온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연에 임하였습니다.
12월 16일에는 의정부 시민들을 다시 대면으로 모시고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전통국악 유희 콘서트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한국국악협회 의정부 지부는 잊혀져가는 우리소리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여 공부하고 연습해서 좋은 공연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국악을 사랑하시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사랑의 봄을 그리며

[2월 24일 예술의전당 소극장]

문화재단 주최로 이른 봄에 추운겨울을 지내고 “봄을 그리며”란 부제로 마련했다.
다행히 대면(70명제한)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좋았다.맑은 가야금 선율로 선보이고 국악협회 예술단들의 청아한 경기민요소리로 화답한 무대였다.

춘심의 꿈꾸는 아리랑

[2월 27일 예술의전당 소극장]

문화재단 주최로 의정부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이른 2월에 춘심의 꿈꾸는 아리랑이란 부제로 대면(70명제한)공연으로 성황리 공연을 마칠 수 있어 더 없이 좋았다.
어린이 민요단의 활약이 돋보였으며 예술단원 모두가 한 팀으로 공연했기에 훌륭한 무대로 기억 될 것이다.

한여름밤의 국악축제 “꽃비·닮·소리”

[6월 15일 예술의전당 소극장]

힘겨운 시기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연습할 수밖에 없는 단원들이 안쓰러웠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선 보여야할 사명감으로 땀 흘리며 연습에 전념하는 모습이 황홀했다. 가뭄에 꽃비가 내리듯 꽃비·닮·소리의 공연으로 보답하리라 의지를 보이며 무대를 열었다. 꽃비가 내리면 막이 오르고 열연하는 단원들이 감사했다.
보답하듯 시민들께서도 만석으로 (70명제한)관람 하였으며 박수 또한 아끼지 않으셨다. 언제나 시민들을 위한 국악의 향연이길 예술단 모두가 기원했다.

꽃비 · 닮 · 소리 예술 단원들

1. 윤현숙(회심곡)
2. 이미숙 시립무용단(화풍별곡)
3. 한재명(판소리), 한인석(고수)
4. 한국국악협회 예술단(윤현숙, 강정님, 정복희, 김다은, 정미희, 김진영)의 동부민요 (강원도아리랑, 어랑타령, 금초댕기)
5. 사물놀이(상도사물놀이) 류정호, 오광식, 김상국, 이무양, 임수빈

프로그램
강 정님
(사회자)
1. 회심곡(불가조)
(사)한국국악협회 의정부지부
출연진 : 윤현숙
2. 무용(화풍별곡)
(사)한국국악협회 의정부지부
출연진 : 이미숙, 노재경, 김윤지, 송연지, 이지수, 이성영
3. 판소리(춘향가)
아리랑국악원
출연진 : 판소리 한계명, 고수 한인석
4. 동부민요(강원도아리랑,어랑타령,궁초댕기)
한국국악협회 예술단
출연진 : 윤현숙, 강정님, 정복희, 김다은, 정미희, 김진영
5. 사물놀이(삼도사물놀이)
한버들예술단
출연진 : 류정호, 오광식, 김상국, 이무앙, 임수빈
반주단
박영식(장구), 김어진(피리), 하동민(대금)
의정부한국국악협회
예술단원모집
010.7129.8552
주최 (사)의정부국악협회
주관 (사)의정부국악협회
후원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사)의정부예총
경기문화유산(경기문화유산바로알기운동본부)
문의 (사)의정부국악협회 ☎010-7129-8552
무료공연
21년 의정부국악협회 한 여름밤의 축제
제23회 시민을 위한 국악의 향연
꽃비 닮은 소리
2021년 6월 15일(화) 19:30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이 병예 | 기획·연출
(사)한국국악협회 의정부 지부장
(사)한국 국악예술단 단장
(사)한국예총문화예술 대상
1. 회심곡(불가조)
윤 현숙
(사)한국국악협회 의정부지부
출연진 : 윤현숙
"모든 사람은 석가여래의 공덕으로 부모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생에서 부처를 믿고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극락세계로 가고 악업을 지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는 내용을 담고있는 불교음악의 한 곡. 일명 회심곡(回心曲)이라고도 한다. 불교의 대중적인 포교를 위해 알아듣기 쉬운 한글 사설을 민요선율에 얹어 부르는 것으로, 본격적인 불교음악인 범패에 비하여 음악형식과 사설이 쉽게 짜여 있다.
2. 무용(화풍별곡)
이 미숙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
출연진 : 노재경, 김윤지, 송연지, 이지수, 이성영
아름다운 부채의 곡선과 여러형태의 발 디딤새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듯 아름답고 섬세하다. 선율을 따라 박력있고 절도있는 남성의 춤사위는 향기롭게 피어나는 꽃에 날아드는 나비와 같다.
3. 판소리(춘향가)
한 계명
- 판소리
한 인석
- 고수
아리랑 국악원
출연진 : 한계명, 한인석
판소리 춘향가 중 동원경사대목으로 변학도의 갖은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고 춘향이가 정절을 지키고 이몽룡과 만나는 장면, 춘향 모친이 "춘향을 누가낳나? 말도 마소 내가 낳네~" 하고 해학과 풍류로 구성했으며 흥겨운 소리로 표현한 대목이다.
4. 동부민요(강원도아리랑,어랑타령,궁초댕기)
(사)한국국악협회 예술단
출연진 : 윤현숙, 강정님, 정복희, 김다은, 정미희, 김진영
동부 민요는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서 불리던 민요로 함경도와 강원도는 한탄조 한식조로 경상도는 경쾌하고 빠른 곡이 많은곡이 특징이며 메나리 토리를 사용한다. 어랑타령 강원도 아리랑 궁초댕기를 찜지박(박마지) 타령 오박 장단에 맞추어 더욱 신명을 지아 낸다.
5. 사물놀이(삼도사물놀이)
류 정호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졸업
- 한버들예술단 대표
- 국악학습당 누리의 대표
한버들예술단
출연진 : 류정호, 오광식, 김상국, 이무앙, 임수빈
각 지역의 가장 빼어난 풍물굿 가락들을 모아 앉은반으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꽹과리 · 징 · 장고 · 북의 네가지 악기가 음양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로 한데 어우러져 내는 소리에서 앙상블의 극치를 이룬다.
반 주 단
박 영식
김 어진
하 동민

국악협회정기공연 “태평가 연심”

[10월 24일 유튜브 촬영 (살판극장)]

코로나 19로 인원제한 거리두기와 만남제한으로 공연이 중단되어 가까스로 비대면 영상촬영으로 유튜브에 올려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비대면으로 공연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전통 민요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고단한 삶의 위로가 되고 또는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주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에 도래하여 우리 전통민요가 어디서든 함께 울고 웃는 희망가가 되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 삶의 원동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악협회 모든 회원 및 예술단원들도 힘든 시기를 이겨내며 시민을 위한 국악의 향연을 위한 기획으로 연출하고 희망찬 공연으로 무대를 꾸려 갑니다.
힘겨운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찬 2022년에는 부디 태평성대의 깃대를 세우고 백성 모두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한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국악인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며 다음 공연으로 더 멋진 무대로 보답해 드릴것이며 언제나 노력하는 예술인 한국 국악협회 의정부지부로 더욱 빛내겠습니다.

제23회 의정부 국악협회 정기 공연
태평가 연

제23회 의정부 국악협회 정기 공연
태평가 연

제23회 의정부 국악협회 정기 공연
태평가 연
온라인 공연
2021년 10월 24일(일) 촬영
| 주최·주관 사)한국국악협회의정부지부
| 후원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사)의정부예총 ㈜더필링컴퍼니

무 용

무용협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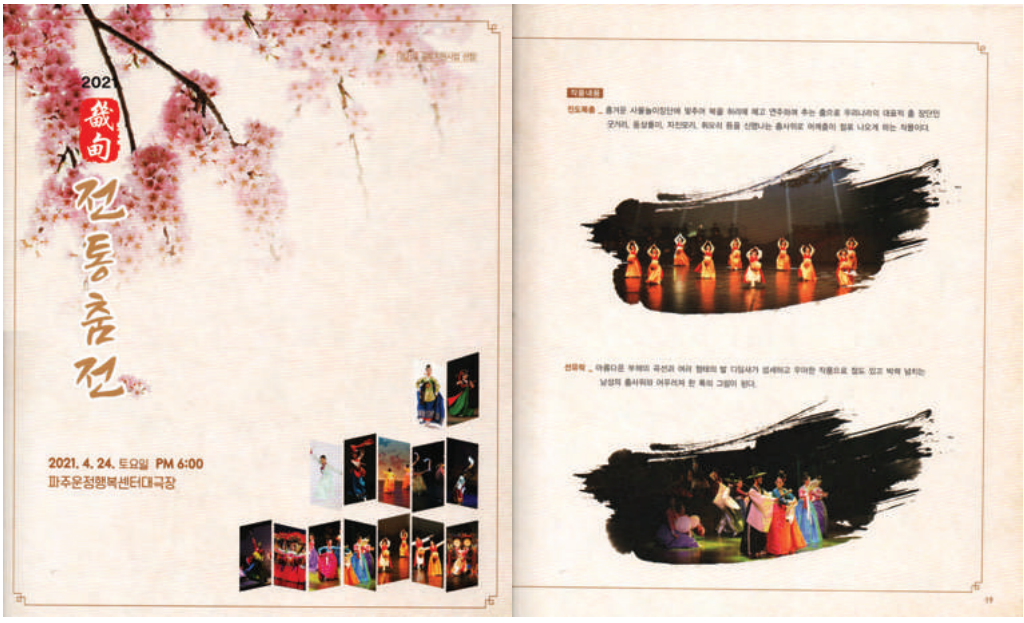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는 1992년 한국무용협회로부터 인준을 허가 받아 설립된 단체로 전통무용 공연활동을 통해 조상의 얼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창작무용, 창작무용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작품세계와 공연활동으로 의정부관내를 비롯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공연에서도 한국의 아름다운 춤사위와 힘찬 위상을 무용예술로 표현하는 단체이다. 또한 공연활동 뿐만 교육활동, 재능기부활동 등을 통해 무용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무용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매년 무용계에 가장 큰 축제인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에 의정부시 대표로 출전하고 있으며, 올해도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제30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과 프로단체가 한 무대에를 통해 노래와 음악, 춤으로 소통하는 의정부시 가무악축제를 8회째 개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상심사로 개최방법을 전환하여 실시하였던 제21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는 초 · 중 · 고등부 · 일반부 및 대학부 · 어머니부 등 세대와 분야를 망라하여 순수예술 무용경연 대회로 우리나라 무용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예술인과 꿈나무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한층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사업이 있다. 이외에도 의정부를 대표하는 가장 큰 축제이자 예술인들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별빛여울축제, 회룡문화제 등 다른 협회 및 예술단체들과 함께하며 의정부시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의정부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약 30년간 의정부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춤으로 소통하고 지역예술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용협회는 이미숙 지부장을 비롯하여 박문용, 이소희 부지부장 등 약 43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인들과 비예술인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공연활동에 지장이 있었으나 회원들의 식지 않은 열정과 노력으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성장하여 시민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다.

2021畿甸 전통춤전

[2021. 4. 24. 파주운정행복센터 대극장]

'기전 전통춤전'은 무용협회 경기도지회가 매년 실시하는 전통공연예술무대로 경기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부들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행사이다. 같은 예술분야를 하고 있어도 한 무대를 통해 서로의 작품을 선보이고 예술로 소통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는 쉽지 않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서로의 예술세계를 독려하며 교감하는 본 무대에 의정부시지부는 '진도북춤'과 '선유락'을 선보여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많은 관객들에게 몸과 마음의 힐링을 주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021 제30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 '6월, 어느날...'

[2021. 6. 10.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매년 행해지는 무용인들의 가장 큰 축제이자 경연을 목적으로 한 행사인 전국무용제 전국대회를 나가기위한 경기도 예선경연대회로 이번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4일간 소수의 관객입장과 유투브 생중계로 선보여져 다른해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공유(구독)하였고 값진 금상을 수상하였다. 젊은 무용수들이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를 예술로 표현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다시한번 뜨거웠던 6월의 아픔을 몸짓으로 표현하였다.

2021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

[2021. 10. 6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제21회 회룡한국무용제 전국대회는 초, 중, 고, 대학생과 일반부, 어머니부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축제의 장으로 무용인재 발굴 및 예술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실시하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비대면 영상심사로 진행되었으며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의정부를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연구하여 지속하고 있다. 경연 직후 즉시 점수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무용계의 권위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본 대회의 위상을 이어나가기 위해 당일 행사개최완료 후 바로 수상자를 사이트에 공개하여 다시한번 공정한 대회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2021 제30회 전국무용제 본선대회 Solo & Duet

[2021. 10. 8 천안 봉서홀]

차세대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예술무대로 천안에서 실시한 제30회 전국무용제 본선대회의 한 일환으로 무용수가 직접 안무하고 기획하여 무대를 만들어가는 Solo & Duet에 협회회원 김민주, 윤혜성 회원이 참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좋은 공연무대를 선보였다. 현대적인 동작과 전통적인 호흡을 아우르며 의정부시를 이끌어갈 차세대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무대를 완성하였다.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2021년 행복로 거리공연 홍보영상제작

[2021. 10. 22 ~ 24 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행복로 테마거리 벨트조성 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룡 거리공연” 상설화로 시의 이미지 제고와 볼거리.추억거리를 제공하여 관광명소화 하고자하여 실시하였던 본 사업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공연인 영상으로 제작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예술과 의정부시의 문화예술을 온라인으로 홍보하고자 기획되었다. 총 4회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무대는 화려하고 우아한 궁중정재로 나라의 평안과 만민의 평화를 기원하는 ‘태평지화무’로, 두 번째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풍류, 진주교방굿거리춤, 동초수건춤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춤과 민속춤으로 구성하여 선보였다. 세 번째 무대는 우리나라 타악기를 총 망라하여 신명나는 춤사위와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며 흥겨운 무대를 선보이는 ‘북의 향연‘과 부채춤, 진도북춤, 쟁강춤을 선보인 네 번째 무대로 누구나 즐기며 의정부시의 지역전통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져 의정부시 문화관광과에서 홍보자료로 사용되었다

제8회 의정부 가무악축제 ‘신명의 어울림’

[2021. 12. 8 의정부문화원]

노래와 음악과 무용을 사랑하는 비예술인과 예술을 전공한 전문예술인들이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다채롭고 다양한 무대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문화예술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관객들의 입장을 제한하고 영상송출을 통한 언택트공연으로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춤인 부채춤을 시작으로 홍보가 박타는 대목의 판소리, 거문고 독주, 쟁강춤, 남도소리, 경기민요, 진도북춤 등 전통의 노랫가락과 현악, 타악연주, 흥겨운 춤판으로 이루어진 무대이다. 타이틀 그대로 모두가 신명나가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게 주요 목적인 본 사업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되는 무대라 할 수 있다.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제22호 경기수건춤보존회 첫 번째 정기공연 『춤–그 길을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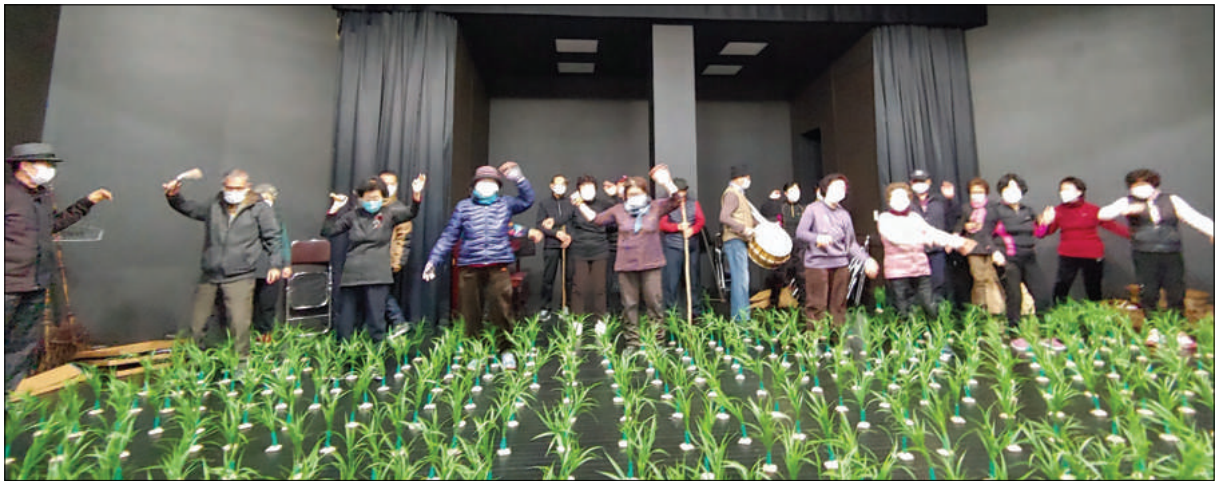
[2021. 11.25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2021년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경기수건춤 보유자인 이미숙지부장의 첫 번째 경기수건춤보존회 정기공연으로 경기수건춤 전수자들과 그 외 국악인 남상일, 무용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진원, (사)보훈무용예술협회 회장 유영수, 의정부시립무용단 단원들이 특별출연하여 소중하고 귀한 무대를 마련하였다. 우리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이미숙 지부장은 의정부시향토문화재 발전에도 기여하며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교육활동을 통한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2021. 10. 10 ~ 12. 3 의정부문화원]

의정부시 평생교육센터가 주최하고 이미숙 지부장과 박문용 부지부장이 약 3개월간 실시한 시각장애인 '신명의 사물놀이' 교육활동 및 성과공연(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실 외)으로 일반인뿐 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사업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 의정부시 대표로 출전하고 있는 민속예술단체와 제21호 의정부시 향토문재 의정부녹양동버들개농요를 안무, 연출, 교육을 통해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각 자치단체가 주관, 주최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의정부시는 12월 3일(금) 의정부시청 다목적이용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경연을 실시하였으며 이미숙 지부장과 이소희, 박문용 부지부장의 지도아래 약 2개월간 연습하여 경연대회에 출전한 결과 전통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은 예술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 공연

- 5.16 202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음악회
〈무문 보이스 찬불축제〉(봉은사 특설무대)

- 6.15 제23회 시민을 위한 국악의 향연 '꽃비담 소리'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 7.6 무용협동조합연합회 창립공연
(서울양천문화회관 대극장)

- 9.12 제17회 양주국악협회 정기공연
'흥겨운 국악한마당' 초청공연(양주문화예술회관)

- 10.2 2021의정부국제가야금축제 '어버이와의 동행'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 10.9 2021년 봉은사 개산대제 국악한마당 '전통예술의 향연'
(봉은사 야외특설무대)

- 10.16 2021년 표충사 '호국불교음악회'
(경남밀양시 표충사야외특별부대)

- 11.3 무용협동조합연합회 'With CAD'
(서울양천문화회관 대극장)

- 11.8 락토페스티벌 '경기수건춤'(M공감아트센터)

- 11.12 2021과천예총 '위드예술축제' 초청공연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문 인

문학을 사유하며 왕성한 활동을 한 문인협회

의정부문인협회 지부장
김 문 희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등 우리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분야에서 문화를 들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문화와 앞으로 변천되는 문화의 바탕에는 문학이 있다. 문학은 그 사회의 삶이나 문화를 반영한다.
문학은 상상력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학문이며, 인간이 추구할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기에 연극이나 영화 등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문학의 역할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근본 잣대이며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의정부문인협회 캐치프레이즈는 '문학을 사유하다'로 정했다. 사유한다는 것은 대상을 두루 생각한다는 뜻이다.
무엇이든 홀로 배우고 사유하고 깨우쳐가야 하는 정신적인 성장 과정은 뒷날의 내 사고 형태와 행동 양식에 많은 흔적을 남긴다. 의정부문인협회는 문학을 사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홀로 배우고 사유하면서 때로는 함께 모여 토의하고 문학으로 소통한다.

코로나19로 집합 모임이 금지된 한 해였지만, 온라인 매개체를 활용하여 그 어느 해 못지않게 회원들은 결속력을 다졌으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2021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온라인상의 왕성한 모임과 토론, 배움의 시간을 누렸다는 것은 뜻밖의 수확이었으며 자랑거리이다.

문인협회 단체 카톡방에서, 수준 높은 문학론을 펼쳤고, 매주 한 번씩 새로운 시를 공유했으며, 온라인 월례회에서는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며 작품 발표를 하고 감상평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부터 7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임영만 시인이 휴일을 제외한 평일 매일 오전 9시에 문인협회 단체 카톡방에서 시론을 펼쳤다. 300자로 함축된 주제가 뚜렷한 시론과 이와 관련된 예시로 제시한 회원들의 절창 시구절은 읽는 이의 시선과 관심을 사로잡았다.

2개월 동안 펼쳐진 시인의 시론 중 한 장을 소개한다.

[300자 시론 / 뻔한 시 그리고 제목 장사]

무엇이든 쓰는 일이 즐거워 치열한 에스프리(열정)의 연소 없이
짧게 행만 바꾸어 놓으면 시(일명 엔터詩)가 되는 것으로
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시가 가벼워지고 쉽게 소모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늘엔 별, 땅에는 꽃, 사람 사이에는 사랑, 이런 식의 읽지 않고 제목만
봐도 뻔하고 안이한 글을 쓰지 말아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폄훼하는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님)
'사랑 타령 또는 그 아류 포함'관찰하지 않은 관념적 이미지를 빌려 그야말로
습관적으로 줄줄이 늘어놓는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목만 보면 내용은
뻔히 예측되는 [뻔한 詩]를 쓰지 맙시다. 나만 심오하고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특히, 시의 내용이 예측되는 시의 제목을 세우는 우는 절대 범하지 말아요.
제 글도 가만 들여다보면 [뻔한 詩]가 많더라고요.
제목을 아주 잘 세운 예문을 소개합니다.

길인 듯 실오라기 몇 가닥 떨어진 듯
실지렁이 금방 지나간 듯
가냘프게 어린 풀들이 누워있는
[수락산에 블랙박스 줍다 /이도영]

나는 상당히 아름다웠던 적이 있어서
가끔 그곳으로 간다
놀라면서 혹은 울면서
[무중력적인 천국 /이숙경]

시론에 이어 8월부터는 김효경 작가의 산문론이 이어졌다. 주 2회 제공한 산문론 또한 이전에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문학론으로 회원들을 감동시켰다. 산문론은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연재되었다. 김효경 작가의 세련된 어법과 강렬하게 와 닿는 독특한 문장으로 펼쳐진 문학론은 매번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다음 글은 김효경 소설가의 산문론 중 한 편이다.

〈김효경의 산문론〉

제 10강 오랫동안 당신은 타오를 것이다
- 부제 : 은유 -

그녀, 일부러 왼손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단골 마트와 식당, 미용실을 두지 않아요. 자매들이 버리려고 쌓아둔 옷을 입고 열아홉 아들이 싫증 낸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매번 분야가 다른 책을 읽고 손 글씨로 리뷰를 적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가끔 안경을 벗고 사물과 자연을 마주하지요.

그녀, 해가 떨어지면 막을 올리는 모노드라마 배우 같아요. 명사와 동사로 삶을 이분한다면 그녀는 후자겠지요.

새벽 천변, 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고 내려앉는 하얀 새가 있었습니다. 흔들거나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보았답니다.

산문론에 이어 10월부터는 김기수 평론가가 '시가 있는 화요일'이라는 명제로 매주 한 번씩 새로운 시를 소개했다. 문인협회 회원들은 이 코너 또한 관심을 갖고 소개한 시에 대한 감상평을 올리며 교감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시가 있는 화요일'은 12월 현재도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매월 월례회를 온라인상에서 한 달도 빠짐없이 진행했다. 매월 넷째 중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원들은 바쁜 일상에서도 일정을 조절하여 과반수가 넘는 회원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지부장의 공지 발표, 질의 응답 시간 등, 대면 모임 월례회와 같은 순서로 진행했다.
또한 매 월례회 때마다 산문분과에서 2명, 운문분과에서 2명이 본인 작품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작품을 읽으며 자유롭게 감상평을 했고, 글을 발표한 작가와의 대담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정기 월례회를 꾸준히 진행하니 오래도록 이어진 집합금지로 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마치 대면을 하고 있는 듯 정감이 느껴졌고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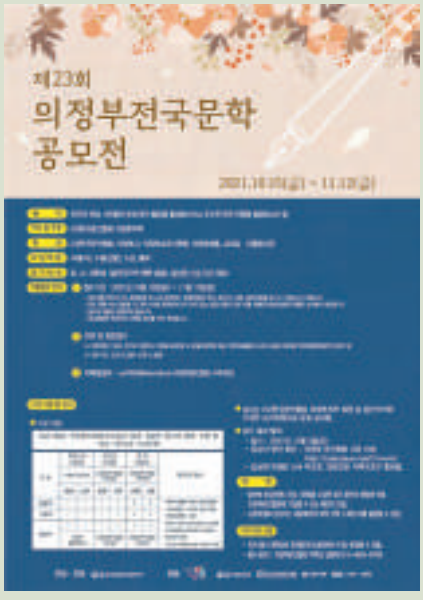
의정부 칸타타 작곡가와 작사자 문인들

10월 27일 헤브리보이스가 주관하는 칸타타 음악회, '의정부 솔리스트 앙상블' 음악 공연을 위해 '의정부문인협회 회원들이 시를 제공했다. 문인협회 회원 8인, 18편의 시가 선정되어 황성곤 작곡가에 의해 칸타타로 탄생한 것이다.

의정부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칸타타'에 문인협회 회원들이 다수 참여한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

10월과 11월에는 '제23회 의정부 전국문학공모전'이 펼쳐졌다. 응시자들의 작품을 온라인과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라 별 어려움없이 진행 할 수 있었다. 의정부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보낸 시와 수필, 소설 등의 문학 작품으로 성황을 이루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상을 했다.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발굴하게 되어 기뻤다.

11월에 들어서서 집합규제가 완화되어 분과별 모임을 할 수 있었다. 산문분과는 의정부역사 탐방과 서점에서 한 권씩의 책 고르기, 문학을 테마로 한 좌담회를 했고, 운문분과는 윤동주 문학관과 청운문학도서관을 방문했다.



제 23회 의정부전국문학공모전 포스터

금년 '의정부문학 제 30집'은 특별호로 발행하여, 역대 문인협회 활동 상황 사진들로 화보란을 늘였고, 책 페이지수도 예년보다 대폭 늘였다. 이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편의 작품을 제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회원들의 왕성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의정부문학 제 30집' 〈특집1〉은 '나의 삶, 나의 문학'으로 기획했다. 작가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이 묻어 있는 문학 세계를 스스로 관조하고 조명해 보는 귀한 지

제30집 의정부문학 표지

면이다.

〈특집2〉는 '작가의 문학론'으로 구성했다. 금년에 4개월 동안 온라인상에서 펼친 시론과 산문론을 책에 담아, 이후에도 오래도록 간직하고 다시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의정부문학 제 30집' 출판기념식은 2021년 12월 11일, 예총 준공식을 막 마친 바로 그 자리, 예총 강당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금년은 대면 모임이 제한된 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온라인이라는 거대한 공간 한 쪽에 '의정부문학의 집'을 짓고 문인들은 자주 모였다.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유익하고도 감동적인 시간을 함께 한 것이다.

제23회 의정부전국문학공모전 심사 장면

출판기념회

운문분과 문학 모임

운문분과 문학 모임

전국적으로 펼쳐진 '제23회 의정부 전국문학공모전', 그리고 특호로 화보와 작품 수를 확충한 '제30집 의정부문학'은, 2021년 문학을 사유하는 의정부 문인협회가 빚어낸 보석들이다.

멋진 문인들이 모여서 문학으로 소통하며, 나아가 의정부 시민들의 예술적 기질을 한 단계 높이는 의정부 문인협회!

문학을 좋아하는 보다 많은 의정부 시민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출간소식

1 이지향 – 이 세상 잘난 분들 어록 〈자기계발서〉
씨앤지 북스 / 2021.2.20 / 값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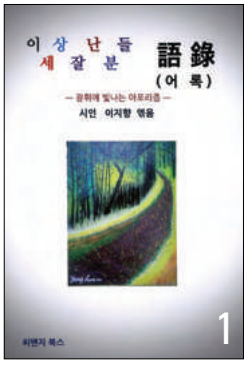
2 이지향 – 顯(현)을 위한 아홉 개의 포도 알갱이 〈시집〉
씨앤지 북스 / 2021. 5월 / 값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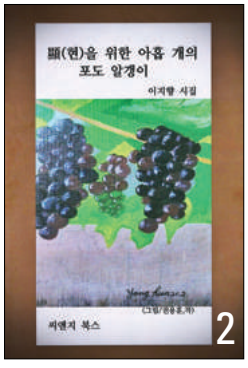
3 이지향 – 마법에 빠진 줌마렐라 〈수필집〉
씨앤지 북스 / 2021.9. 9. / 값 12,000

4 임경자 –' 철부지 아내 2' 〈시집〉
도서출판 글벗 / 2021.06.21. / 값 12,000원

5 최병로 –크림빵〈시집〉
하움출판사 / 2021. 8.26 / 값 10,000원

6 이숙경 –내가 행복했던 교회로 가주세요〈신앙 에세이〉
엠오디 . 2021.11.30 / 값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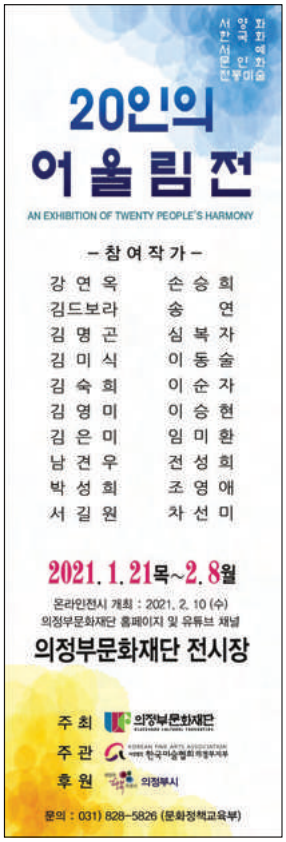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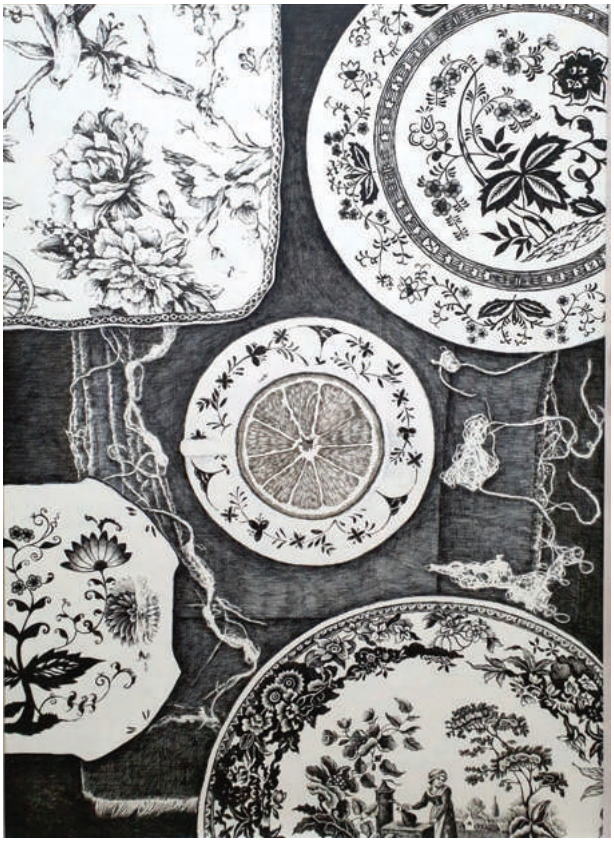
미 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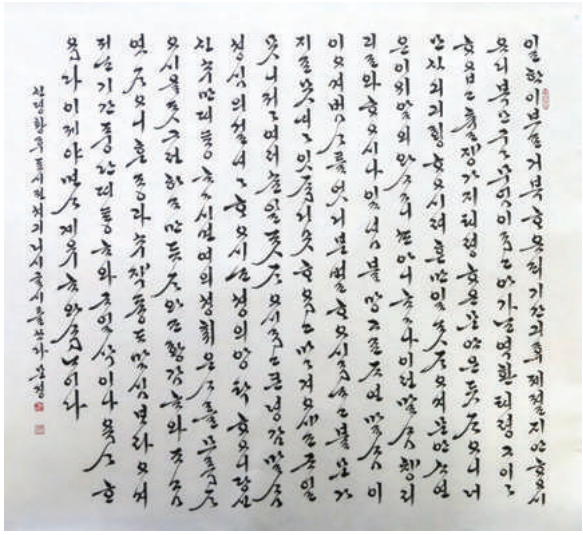
지역작가초대전 – 20인의 어울림전

[2021. 1. 21 ~ 2. 8 의정부문화재단]

2021년 1월 21일 부터 2월 8일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인의 어울림전은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에서 주관한 전시로 의정부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중견작가 20인을 초대하여 회화와 전통서화의 콜라보 전시로 재)의정부문화재단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함이요 지역작가 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며 역량강화와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함이며 각기 다른 분야들과 콜라보 하여 유무상생 즉 없음과 있음 다름이 서로 상생함에서 모티브가 되어 기획되었다.







파마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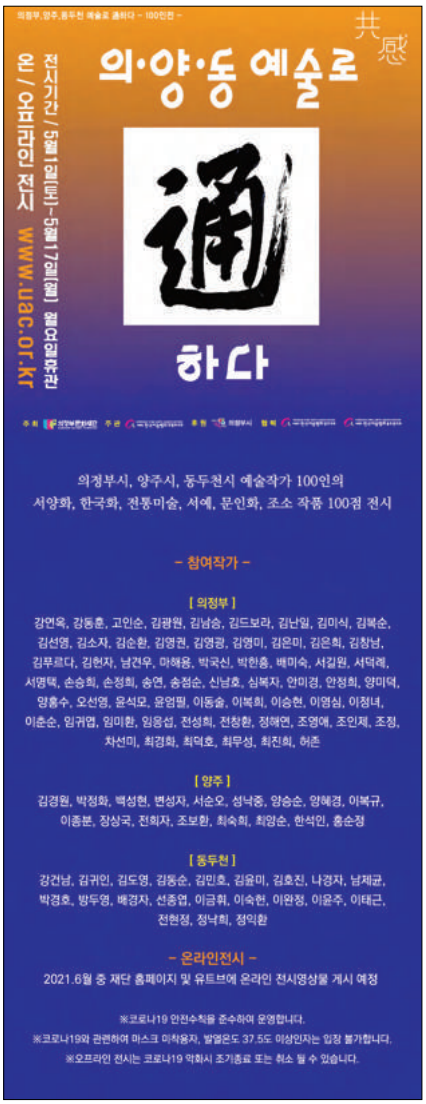
[2021. 5. 1 ~ 11. 13 온라인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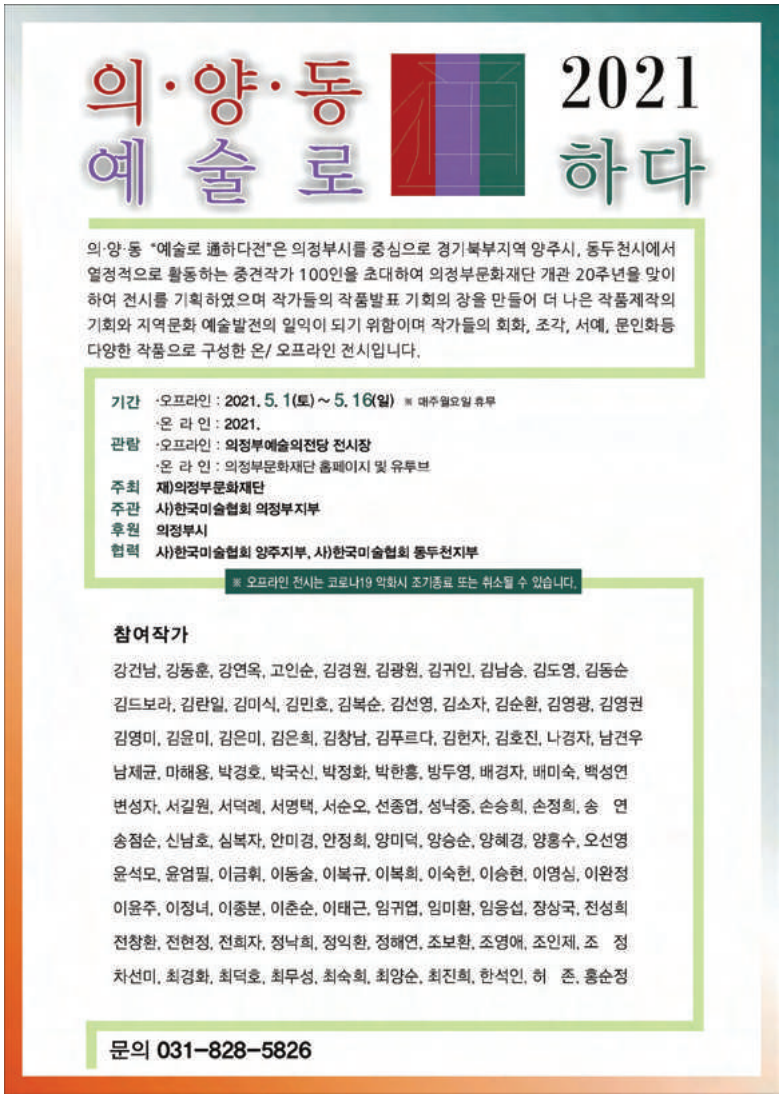
PAMAF(passionate artists, merry art festival) 파마프전 은 2021년 5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전시로 의정부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와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 후원으로 경기북부지역 대표 중견작가 33인을 초대하여 100호전을 진행하였다. 지역 작가들과 시민들에게 좀처럼 볼 수 없는 대형작품을 전시하여 예술가들의 우수한 작품을 지역민들에게 전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작가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장작의욕을 고취하였다.

의 · 양 · 동 예술로 통하다 – 100인전

[2021. 5. 1 ~ 5. 16 재)의정부문화재단]

재)의정부문화재단에서는 사)한국미술협회의정부지부와 협력하여 뿌리가 하나인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인들과 함께하는 의 · 양 · 동 예술로通하다 기획전을 마련하였다.
5월 1일 부터 5월 16일까지 전시하여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에서 활동하는 미술작가 100인을 모서 3개시가 통합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미술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협력과 교류를 통해 창의적인 예술 감성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 · 양 · 동 예술로 통하다 – 100인전

제30회 전국회룡미술대전

[2021. 11. 2 ~ 11. 10 재)의정부문화재단]

2021년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 전시로 사)한국미술협회의정부지부에서 주최하고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예총에서 후원하는 제30회 전국회룡미술대전은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공모전으로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체 40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2부로 전시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20회 2021현대미술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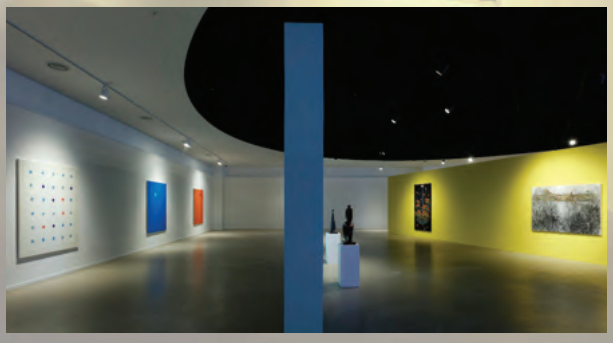
[2021. 12. 2 ~ 12. 05 재)의정부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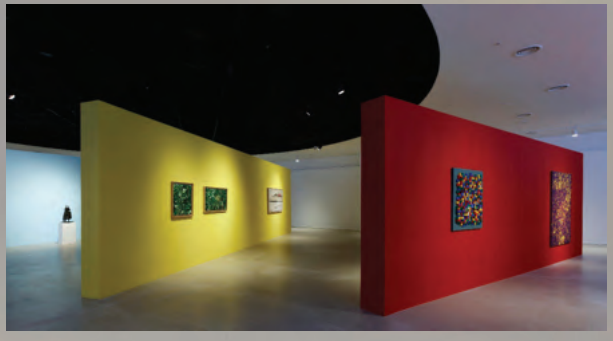
2021년 12월 2일 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 2021현대미술초대전은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예총에서 후원하였으며 의정부미술협회 창립31주년을 기념하여 88명의 협회작가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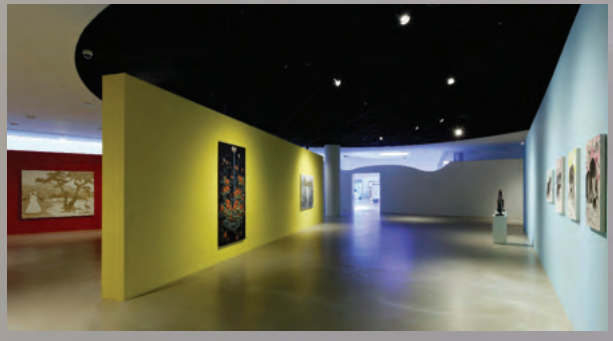
연결

[2021. 07. 28 ~ 10. 27 백영수미술관]

2021년 7월 28일 부터 10월 27일까지 의정부미술도서관과 백영수미술관 에서 동시에 진행된 연결은 의정부의 대표작가 백영수 화백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작가 홍보와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 되었으며 의정부지역 작가 11인과 의정부미술도서관에서 주최한 전국 청소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2점을 전시하였다. 의정부미술도서관에서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와 협업으로 진행된 연결 전시는 의정부를 대표하는 고 백영수 화백과 지역 중견 작가들, 미래의 예비 작가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전시로 과거 현재 미래의 의정부 문화예술의 현 위치를 고찰하는 전시가 되었다.







사 진

제26회(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회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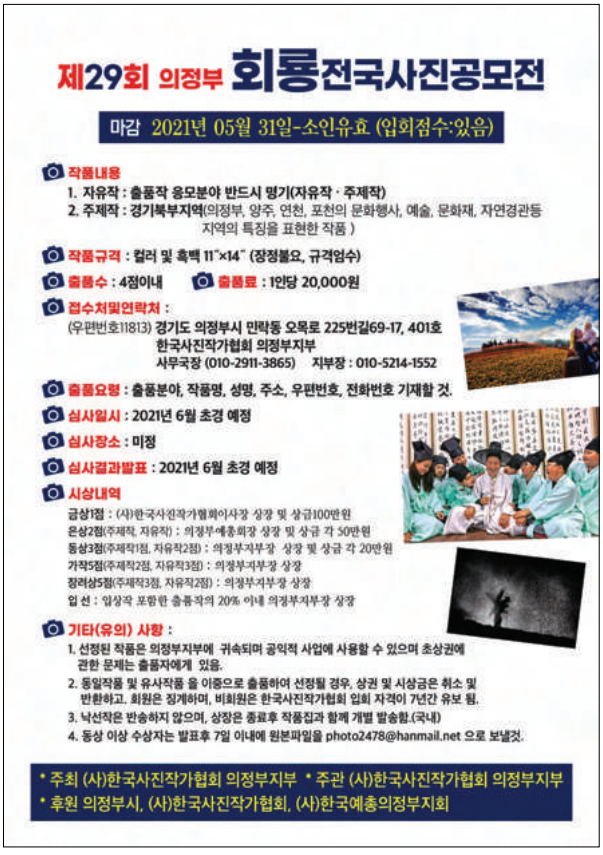
[2021. 07. 08 의정부예술의전당 원형전시장]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7월8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원형전시장에서 제29회 회룡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작과 함께 전시

제29회 회룡전국사진공모전

[2021. 07. 08 의정부예술의전당 원형전시장]

코로나19로 인하여 비 대면으로 7월8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원형전시장에서 의정부지부 회원전 47점과 함께 전시 (총520점출품 / 금상1, 은상2, 동상3, 가작5, 장려5, 입선92)



제29회 회룡전국사진공모전 대상작품

삶의현장

서성진

2012 제13회 광양매화사진공모전 입선
2013 제27회 춘향제사진촬영대회 입선
2014 제38회 전주사진공모전 입선 2점
제30회 새만금 한 · 중 국제사진촬영대회 입선
제16회 나주 배꽃 · 유채꽃 전국촬영대회 입선
제24회 정읍전국사진공모전 입선
제7회 홍성사진공모전 입선
제28회 남원 춘향제행사전국사진촬영대회 입선
제33회 전국익산사진공모전 입선
제28회 전국춘향사진대전 입선
제34회 광주전국사진공모전 입선
제23회 공주웅진사진공모전 가작
제4회 김천직지사촬영대회 특선
제20회 세미누드촬영대회 입선
2015 제2회 완주와일드푸드 사진촬영대회 입선
2017 제49회 전라북도사진대전 입선
2018 제50회 전라북도사진대전 입선

수상소감

장수의 도시 의정부 회룡전국사진공모전에서, 저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류사진 12년차로 이번에 조류사진을 선택하여주신 심사 위원님을 비롯한 의정부지부 지부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지된 촬영이 아닌 역동적 움직임을 촬영함에 있어서 날씨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촬영이 힘들었습니다.
이번 조류사진 입상으로 인한 많은 조류사진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정부 회룡전국사진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수많은 작품을 출품하였지만 채택이 안 된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또 다른 사진인의 길을 걷도록 하여주신 의정부사협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도사진 촬영

[2021. 12. 08 의정부2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의정부2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의정부지부에서 관내 어르신들에게 효도사진 촬영 봉사를 진행하였다.

의정부예총 김광수 사진작가 "2021 대한민국예술축전"대상 수상

대한민국예술축전에서 경기도 대표로 참가한 의정부예총(회장 김원기) 김광수 사진작가가 전체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총이 주관하였으며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었다.

전국 시도연합회에서 예선을 거쳐서 출전한 3개 부문(국악, 사진, 영화)의 40팀이 치열한 경쟁 끝에 수상자가 선정되었고, 3개 부문 중 2개의 부문을 경기도 대표팀이 석권하였으며 그 3개 부문 중 최종 대상 수상을 의정부예총 김광수 사진작가가 차지하여 그야말로 경기도가 압도적인 결과를 거머쥐게 된 것이다.

대상을 수상한 의정부예총 김광수 사진작가는 "30여 년의 작품 활동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되어 영광이고 감사하다" 면서 "의정부 예술인의 한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품게 되었고 이 영광을 의정부예총 예술인들에게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예총 김원기 회장은 의정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문화예술 단체로 거듭나기를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함께 활동하는 의정부 예술인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예술축전'은 2018년부터 예술인들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 신인예술가를 발굴 · 육성하고자 매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상 수상작 / 화합의 한마당

김광수 (金廣洙 Kim Gwang Soo)

충북 충주 출생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졸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연구간사, 부지부장 역임
대한프로인상사진 추천작가
월간영상,월간사진 추천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작분과운영위원역임
경기도사진대전추천작가상 수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보도사진분과 운영위원역임
제28회 보령전국사진공모전 심사위원장 외 다수 심사
경기도 도지사상 수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행전안전부장관상 수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국회의원상수상
의정부시장상 수상
의정부경찰서장상 수상
제1회 2회 3회 4회 운산 김광수 사진전 개최
배워봅시다 –사진편 – 방송강의(지역케이블 우리방송)
전국각종공모전 대상,금상,특선등 다수 수상
현,경기도사진대전 초대작가
현,전국사진공모전 심사위원
현,(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사무국장
현,TOPIC IMAGE STOCK PHOTOGRAPHER
현,경기북부사진연구회 회장

대상 수상작 / 치유와 화합의 한마당

대상 수상작 / 화합을 통한 김치의 세계화

연 극

연극협회 이야기

의정부연극협회는 1995년 사)한국연극협회 의정부지부로 탄생하여 2019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30~50여명의 회원들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한다.

유준식지부장을 비롯하여 전영옥부지부장, 박정근부지부장, 문인옥감사 이하 예술인들로 연극협회 사무국이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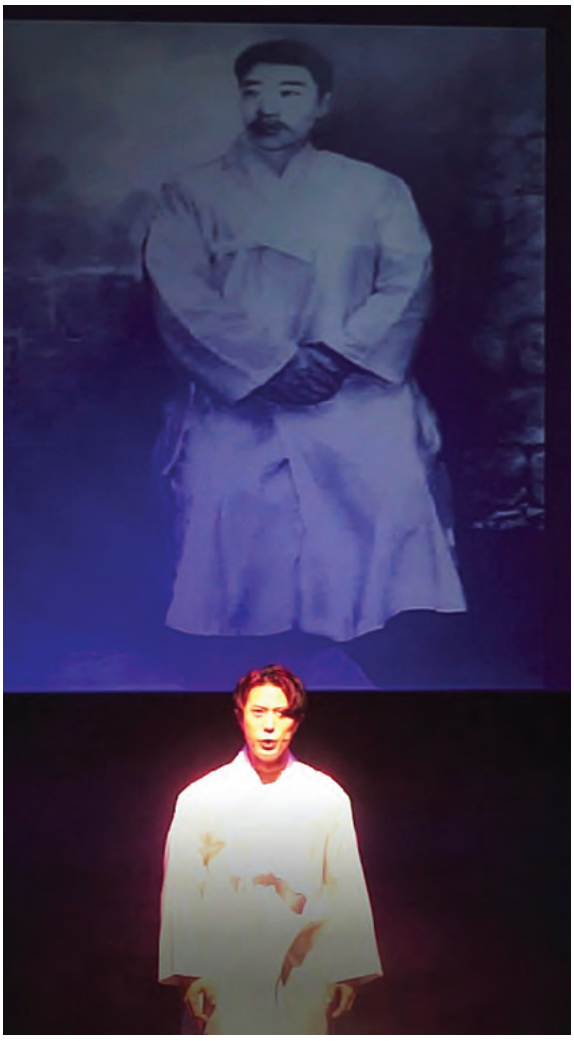
1995년부터 현재까지 원코리아페스티벌을 주최하여 통일축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2008년, 2019년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 대상과 2019년 대한민국연극제 본선 금상을 수상하여 의정부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의정부시민과 함께하는 어르신을 위한 효공연과 청소년대상 예술교육공연 및 지역민을 위한 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 연극협회는 시민들의 질적인 삶과 힐링을 위해, 전문적 배우양성을 위해, 예술인들의 교류를 위해 협회소속 극단 한네, 극단허리, 대동전위극회, 의정부시민극단 고구려 등 매년 끊임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 추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의정부시가 더 나은 문화예술도시로 탈바꿈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One-Korea Festival

극단허리 뮤지컬갈라쇼 – '겨울연가'

세계 최후, 유일의 분단과 반목의 땅, 코리아.
코리아에서도 그 현상이 가장 극렬하였고 아직도 진행형인 주(主)지역, 경기 북 그 지역의 중심지이며 상징지인 의정부.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가장 강렬한 분단의 도시인 이곳에서 평화와 통일의 싹을 틔우고 기른다. 아니 어쩌면 그러한 곳이기에 가장 강력하게 평화와 통일의 싹을 틔울 수 있으리라. 그리고, 전 세계의 영원한 관심 '평화'에 대한 추진의 선두에는 언제나 정치도, 경제도 아닌 '문화(예술, 스포츠 등)'가 자리해 왔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다시 한 번 검증되었다.
이 엄청난 문화 테마를 가진 의정부에서 민족분단의 반목과 시대착오적 냉전의 사회문화를 녹아내리게 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는 강력하고도 파급력 센 예술마당을 펼친다.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국민들의 문화생활 활성화는 덤이다.
올해는 통일을 향한 염원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다양한 버라이어티 페스티벌. 11곡의 뮤지컬넘버로 우리의 염원을 노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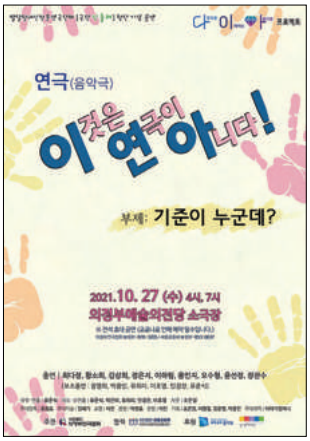


RENT
ORIGINAL MOTION
PICTURE SOUNDTRACK

소외나눔예술교육 '다이아프로젝트'

발달장애인 극단을 만들어 연극공연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협회회원들과 세움공동체 사회복지사, 그리고 참여대상자인 성인발달장애인이 함께모여 6개월동안 발달장애인들의 직접 참여기회가 적은 연극교육을 통해 연극공연을 만들어가면서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성향상과 협동심을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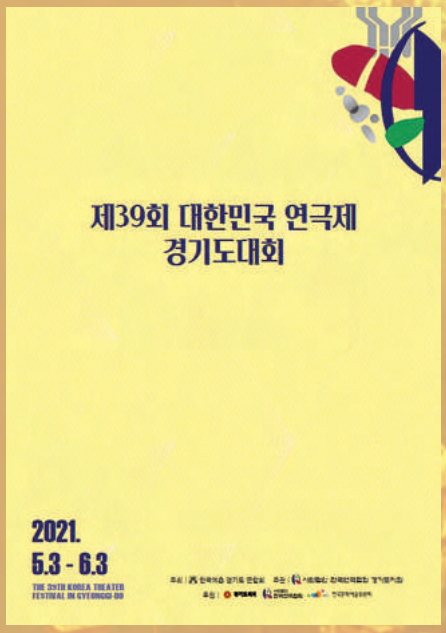
11027,의예당



상_이연아,211027,의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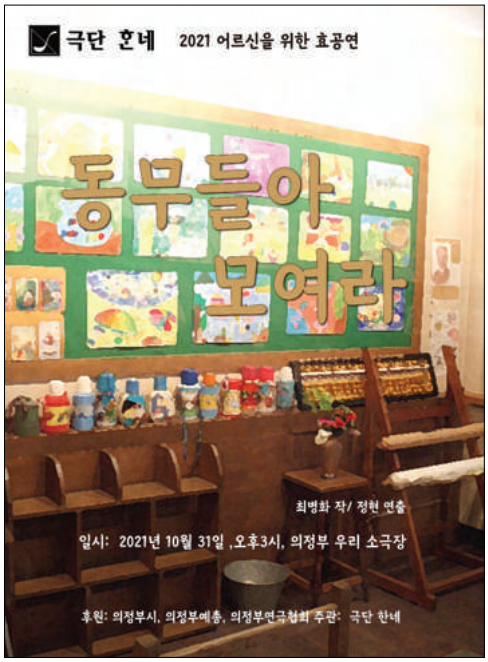
대한민국연극제 '버스가 온다' – 극단 한네

버스는 기다림이다. 버스는 희망이다.
우리는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독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버스요,
내 안의 온갖 고뇌와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것도 버스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버스와 이상의 버스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버스가 각박한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어르신을 위한 효 기획공연 '동무들아 모여라' – 극단한네

의정부시 내 노인복지시설로 찾아가는 효'공연
코로나19로 거의 갇혀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영상 촬영 제작하여
화면으로나마 즐겁게 해드리고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현장감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 번 반복하여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최대한
어르신들이 힐링 하실 수 있도록 제작했다.



안톤체홉의 사랑3

의정부연극협회소속 극단허리의 레퍼토리 명불허전프로젝트이다.
안톤체홉의 단편 걸작 3편을 한 가지 주제로 모아 우리나라의 현재로 가져왔다. 고전 명작은 언제 어디서도 통한다더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났다. 안톤체홉의 예술성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상이 곱하기가 되어 묘한 울림이 어우러져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상징적 오브제나 대도구들로 단순하고도 강렬하게 빚어낸 '무대미술'과, 안톤 체홉도 아니고 우리 현대극도 아닌 이 새로운 코메디를 떠메고 갈 '음악'을 모두 새로이 작곡했다는 점 등은 이 작품의 퀄리티를 단단히 치받쳐주고 있는 장점이다.

의정부연극협회는 공연예술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한반도의 소통을 펼쳐갑니다.

연예

의정부 아트 스테이지 “걱정 말아요 그대”

[2021. 2. 20 의정부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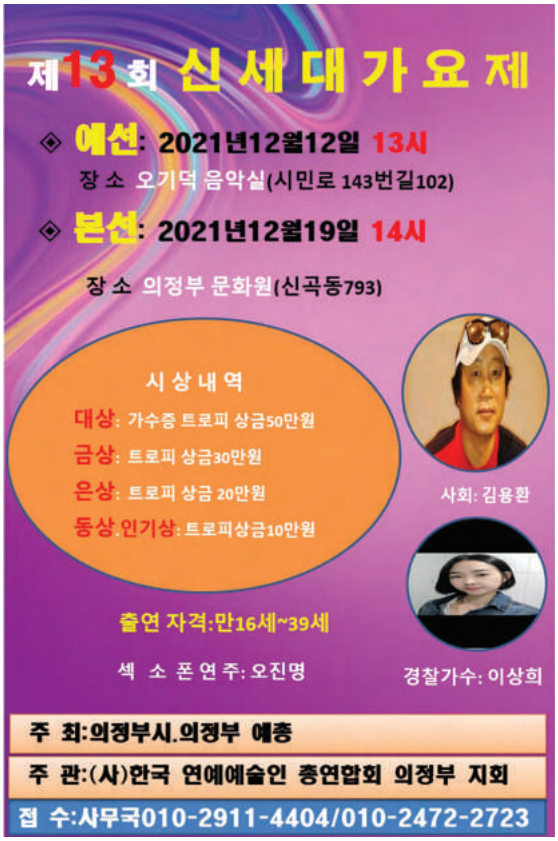
의정부 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의정부아트 스테이지에 의정부연예협회의 “걱정 말아요 그대” 공연이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다.
100명 전석이 입장 완료된 가운데 연예협회 소속가수 7명이 공연을 치렀다.

2021 시민을 위한 문화축제

2021년 6월13일 제4회 시민을 위한 문화축제행사를 김용환 사무국장 사회로 치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원칙에 따라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김원기 의정부예총 회장의 축사에 이어 의정부연예협회 박영길 회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의정부 시민과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 고 했으며 의정부연예협회 가수 10여명과 김종호 동호회 분과 위원장의 섹소폰 연주도 공연하였으며 영상으로 촬영되어 유튜브에 올렸다.

제13회 신세대가요제

제13회신세대가요제는 많은 예선 참가자들중 12팀이 결선에 진출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총 5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대상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외에 협회가수증이 발급되어 가수로서의 활동을 하게 된다.
13회 신세대가요제는 12월12일 예선을 진행하였으며 12월19일 의정부문화원에서 본선이 개최되었다.



흥선노인복지관 TV기증

협회에서는 의정부 흥선 노인복지관에 대형 텔레비젼을 기증했다.
흥선노인복지관 백희선 관장은 흥선 노인복지관에 대형TV기증에 고마움을 표현하며 어르신들의 정보화 교육등에 잘 활용하겠다고 하였다.

MOU체결[밀알봉사단]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의정부지회(회장 박영길)과 밀알봉사단(회장 장광복)과 MOU 체결로 봉사 나눔을 약속함.

쌀 나눔행사 [2021. 9. 16 사랑의 쌀 나누기 2탄 행사]

협회 박영길 회장은 지인 협찬과 본인의 사비를 들여 10kg의 쌀과 라면, 소금 등을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연주가, 가수등 협회회원 50여명에게 지급하였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모든 회원이 희망을 잃지 말고 잘 견뎌달라는 당부도 하였다

연예협회 이모저모

[가수들 현황]

[신비]

글로벌 최강 명인대상 시상식초대가수
코로나로 상호교류가 단절되어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초대형 국제행사전 세계 한복 모델쇼에서 신비가수가 아티스트상 수상

[송유나]

2021년 제27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모범가수상 수상
어려운 시기임에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범가수임을 인증

[최정]

양주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랑모듬 공연

협회 정기모임

의정부 연예협회는 매달 정기모임을 가졌으나 코르나로 인해 거의 1년 반동안 모임을 하지못 하다가 이번에 12월 정모를 가졌다.
이번모임에서는 새로 임명된 고문들과 부회장에게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으며 연주분과, 가수분과, 국악분과등 회원 약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음 악

음악협회 이야기

한국음악협회 의정부지부는 1993년 한국음악협회로부터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인준을 받은 단체입니다. 우리 의정부음악협회는 전문음악인들의 활동단체로서 의정부지역의 클래식 공연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음악기획 및 공연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나누어지는데 특별히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음악적 활동이 제한되어 기회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경기도 관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바 개인의 음악 활동 외에도 각 단체에서 매년 정기연주회나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 참여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고 보람된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단체 및 일반 시민들과 두루 소통하며 필요한 음악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함께 공연 활동을 하는 등 지역의 문화 예술적 발전뿐 아니라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의 시선과 마음을 이어주는 역할에도 커다란 힘이 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 제14회 회원음악회

〈회원음악회〉는 매년 새로움이 움트는 봄을 맞아 협회에 새로 가입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주로 성악, 피아노, 기악 등 자신의 전공에 따라 오랜시간 갈고 닦은 실력들을 발휘하며 시민들과 지인들께 얼굴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특히 젊은 인재들이 눈에 띄어 반가움과 기대가 더 컸었는데, 모두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답니다.

2021 찾아가는 행복배달 음악회

[개인회원] 강은미, 권재연, 김성신, 김현주, 박성권, 반호성, 신미희, 이경미, 이현숙, 조매란, 최두리, 최은주, 한기웅, 한마루 (14명)

[단체회원] 끌림, 신곡실버합창단, 예인사현, 예인챔버오케스트라, 의정부유스챔버오케스트라, 의정부윈드오케스트라, 의정부혼성합창단. 필챔버오케스트라 (8팀)

〈2021 찾아가는 행복배달 음악회〉는 지금까지 음악협회에 소속된 개인회원과 소그룹 단체나 기악단체 및 합창단체들이 비교적 음악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나 단체 및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음악으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였는데, 특별히 2021년 6월에 의정부에 음악도서관이 개관되는 뜻깊은 희소식에 일반 시민들을 그곳으로 초대하여 멋진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존과 같이 음악적 접근이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음악적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큰 호응을 얻었으며, 부득이한 이유로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으로 연주회를 촬영하여 방문 후 송출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단체 8팀과 14명의 개인회원이 참여하여 지역이나 연령 및 성별, 빈부의 어떤 차등도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모든 시민들이 폭넓게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었으며, 활기찬 지역 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음악적 공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배달 콘서트" 음악회 개최

"찾아가는 행복배달 콘서트" 음악회 개최

"찾아가는 행복배달 콘서트" 음악회 개최

한국음악협회 의정부지부와 의정부음악도서관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음악협회 의정부지부는 지난 8월 20일 의정부음악도서관과 지역음악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의정부음악도서관과 협약으로 의정부시의 음악 관련 인적 · 물적 인프라 공유와 함께 지역의 음악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개관기념 뮤직페스티벌 야외 공연을 협력 · 진행했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음악도서관의 역할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음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음악 공연 공동 개최를 통하여 지역 음악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문화 예술 진흥 확산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하여 박영애 도서관운영과장은 “한국음악협회의정부지부와 지속적 협력 관계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음악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음악을 기반으로 한 문화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향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라는 글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시국이 어려운 중에도 시장님을 비롯하여 예총에 소속된 여러 단체에 이르기까지 항상 도시의 다 나은 문화적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도시 의정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공감과 협력 및 인정의 폭을 더 넓히고, 심신의 안정과 여유로움으로 행복감과 만족감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지면을 통해서나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기업이나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양한 근거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혜택이 얼마나 주어지느냐의 지표로도 가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가 그 어느 도시보다 행복한 도시로 도약하고 더 발전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 시립합창단도 이제는 상임이 되고, 시립관현악단도 만들어지고, 문화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더 비중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오고 싶고 살고 싶고 삭막하지 않은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술의 전당을 비롯하여 미술도서관이나 음악도서관 등 겉으로 보여지는 랜드마크보다 그 곳을 의정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마련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심으로 문화예술을 격려하고 지지할 의지가 있다면 관심이 있는 만큼 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그 역할들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다른 지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배정받는 현실을 볼 때, 물질로 살 수 없는 재능들을 너무 값없이 바라보는 듯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인들이 고정적으로 활동할 만한 기회는 매우 부족한 반면, 저마다 재능을 전공으로 키우기까지는 누구보다도 긴 시간과 물질을 심고 있답니다. 최소한 2022년에는 극장 사용에 대한 배려의 지경이 넓어지고, 예술인들의 시민을 향한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소외된 곳이 없이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고문

끝나지 않는 인연 백영수

[사)한국미술협회의정부지부장 임 응 섭]

백영수 화백을 처음 뵌 것은 불과 몇 해 전 일이다. 간혹 미술 매체나 지인들을 통해 선생님의 소식을 듣기는 했으나, 내 전공이 서예인 관계로 인연이 없었다.

필자가 사) 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 회장으로 취임한 2016년부터 지역 작가들의 근황에 귀를 기울였다. 그 일을 계기로 백영수 화백을 뵙게 됐다. 초여름 어느 날 선생님을 뵈러 호원동에 위치한 아뜰리에로 찾아갔다. 나직하여 속이 들여다보이는 철재 대문 너머로 너른 마당에 가득 핀 마가렛 꽃이 보였다. 꽃송이들이 손님을 반기는 듯했고 왼편에 서 있는 소나무는 밑동에서부터 가지를 여럿 뻗어 올려 참 인상 깊었다. 화백님의 첫 인상은 동양 미학에서 말하는 회사후소를 떠올리게 했다. 그림 그리기 전 흰 바탕의 화폭처럼 순수한 내면을 드러내는 해맑은 웃음과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뒤 백영수 화백을 자주 찾아뵈었는데, 김명애 사모님과 함께 매번 필자를 반겨 주셨다. 당시 선생님 연세가 아흔넷이었다. 나이 탓이었을까. 선생님은 오랜 시간 대화 나누시길 힘들어하셨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을 즐기셨다. 사람을 좋아하셔서 아뜰리에로 지인들을 초대하여 조촐한 가든파티를 자주 열곤 하셨다. 그 자리에 함께하며 선생님의 폭넓은 인연에 놀라곤 했었다. 선생님 덕분에 각계각층 분들과 교류하는 호사를 누리곤 하였다. 그간 책으로만 접하던 근대미술의 거장 이중섭 · 김환기 · 유영국 · 이규상 · 장욱진 등 신사실파의 교류담을 파티 현장에서 실감나게 들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1세대 서양미술가들의 당시 역사가 묻어 나오는 생활고를 실감했고, 그 속에서도 낭만과 열정이 살아 있었음을 고스란히 느꼈다.

〈성냥갑 속의 메시지〉라는 제목의 선생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시대로 들어가 나 스스로 선생님의 삶을 경험하기라도 한 듯 뭉클하여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당대 작가들의 일상을 생생히 알고 싶다면 선생님의 에세이를 읽어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강산이 몇 번 바뀌는 세월을 거치며 묵묵히 예술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기 위해 흰색 유화 물감을 동료에게 몇 푼 받고 팔아 생계를 이어 갔던 이중섭 화가의 무용담을 자서전을 통해 알게 되었다. 미술동맹, 대한미술협회에서 활동하시며 근대미술의 역량을 도모하시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창립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시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과 경제적 궁핍 속에서도 문화 예술을 활성화시키기도 하셨다. 그 과정에서도 낭만을 즐기고 작가들과 경쟁하기보다는 격려와 사랑의 힘으로 돈독한 우정을 나누셨다. 오늘날까지 한국미술계를 잘 이끌어 올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하신 것이다. 선생님은 학창 시절 영화를 좋아하셨단다. 해서 지금도 가끔 사모님과 영화관에 가신다고 했다. 선생님께서는 독실한 크리스챤이시다. 아뜰리에 현관으로 들어서서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측에 경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의 미술관 경당보다는 좀 더 크고 높아 햇빛이 드리우면 아치형 창으로 내리는 빛이 따스하게 선생님을 감싸주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선생님께서 작품을 구상하는 상상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선생님은 그곳을 유독 좋아하셔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당시, 가끔씩 경당에 데려다 달라 요

청하시곤 했다. 선생님을 처음 뵈올 때는 지팡이나 워커를 사용하셨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쩍 수척해지셨고, 결국 휠체어를 타시게 되었다. 휠체어를 트렁크에 싣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선생님은 차를 타고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셨다. 김명애 사모님은 싫은 내색 없이 선생님과 바깥나들이를 다니셨다. 가끔은 필자도 함께 찻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두 분과의 추억을 쌓곤 했다. 선생님은 아이처럼 패스트푸드점 피규어를 모아 두시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셔서 사모님과 나를 웃게 만드셨다. 선생님은 다락방을 좋아하셨다. 옛 아뜰리에엔 선생님께서 직접 지어놓은 다락이 있었다. 그곳에 올라가시는 것을 좋아하셔서 현존 미술관에도 다락방 있다.

선생님께서는 6.25 피난 시절 어린아이가 힘에 겨워 고개를 기울이고 벽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셨단다. 그 모습이 인상적으로 각인된 연유로 갸름하면서 기운 얼굴이 형상화되었다는 이야기도 해 주셨다.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극도로 간결한 구도가 화면에 조화를 이룬다.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한 구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닌 치밀한 계산과 고뇌로 배치된 구도라 하셨다. 가부좌를 틀고 작업을 시작하시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곤 하셔서 다리가 저려 일어나지도 못할 때가 잦았다 하셨다. 또 호주머니에는 언제나 작은 연필과 작은 메모지를 지니고 다니시며 왼손으로 스케치한 것을 보여 주시곤 하셨단다. 필자와 있을 때도 선생님 손은 한시도 가만있지 않았다. 따님이 프랑스에서 보내준 선물 상자를 잘라 콜라주 작품을 만들거나 버려질 은박지를 이용해 작은 조형물을 만드시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았다. 그 연세에도 작품에 대한 선생님의 열망은 식을 줄 몰랐다. 2017년 봄부터는 미술관 건립계획으로 기대감과 걱정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다. 필자는 이삿짐 싸는 일을 도와드리느라 다락방 물건들을 옮겼다. 당시 너무 커다랗다는 이유 탓에, 처음 선생님 댁을 방문했을 때 인상 깊게 보았던 소나무(1973년 도봉산에서 캐 와 옮겨 심은 이후 선생님 내외와 긴 세월 동고동락한 나무였다)가 손발이 잘려 누군가의 집으로 이사 가던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작품과 집기들을 집과 창고로 옮기고 선생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뜰리에를 철거했다. 그때 선생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2017년 7월 12일, 드디어 미술관의 형체가 드러나고 상량식을 치렀다. 그날 막걸리를 따라 정중히 예를 들이시던 두 분의 모습에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뜰리에가 철거되던 날의 슬픔은 잊으신 듯했다. 백영수 미술관 현판을 달고 2018년 4월 20일 미술관 개관식을 하던 날 두 분의 설레는 감정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후 두 달 남짓 지나자 백영수 선생님께서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우리 가슴에 별이 되어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나셨다. 그날이 2018년 6월 29일 이다. 향년 96세, 미련 없이 당당히 떠나셨다.

백영수 화백과 함께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으나 그보다 가슴 깊이 새긴 인연은 없을 것이다. 숭고한 화가의 인생 끝자락, 이별의 마지막 미사 시간이 떠오른다. 비 내리는 성당 창가에 희미하게 드리우는 빛을 받는 선생님의 스테인드글라스. 그 아래 선생님이 환하게 웃고 서 계신 듯했다.

시간을 따라 기억 저편으로 멀어져갔나 싶었는데, 이맘때가 되면 그 시절이 문득 수면 위로 떠올라 가라앉은 감정을 뒤 흔든다. 사람은 가도 흔적은 남는 것. "예술가들은 누구보다 힘이 세다."라며 미소 짓던 선생님이 그립다. 사회의 뒷받침과 관중과 예술 관리자들이 힘을 보태면 선생님께서 바라시는 위대한 나라, 문화예술이 마음껏 활개 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 그 정신의 편린이 또 이곳에서 위대한 화가를 탄생시키기를 기원한다.

전시부문 작품

문 인

미 술

사 진

당신께

(엽편소설)

붉은 옷을 입은 당신은 베란다 문을 소리 없이 밀어 말없이 제게 다녀가셨지요.

그런 당신께 답장을 쓰려합니다. 첫 문장을 기다리며 두 손을 모은 자세로 턱을 고이다 어쩔 수 없이 노트북 앞에서 일어나고야 말았지요. 뒤로 묶었던 머리를 풀고 천변을 좀 걷기로 합니다.

오월의 낮 비가 내립니다. 낡은 자주색 우산을 집어 들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딘가에 버려두고 올 심산이거든요. 우산뿐인가요. 물려받은 서랍장이며 책상, 집안에 있는 사물들은 오래된 순서로 저를 기억하고 있더군요.

우산이 귀하던 시절, 고등학생이던 언니와 오빠가 성한 우산을 먼저 집어 가면 관절이 부러진 초라한 우산을 들어야 했지요. 첫 월급으로 꽃무늬가 가득한 우산을 마련했는데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소유의 기쁨과 자랑은 잠시였어요. 상표도 아까워서 달고 다니던 튼실한 자동 우산을 그만 버스에 두고 내리고 말았으니까요. 생채기가 생긴 마음이 아려서 아무에게도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못했어요.

새우산은 제 마음에 인두로 아프고 확실하게 상실을 찍어 남겼습니다. 새것이 손에 들어오면 멀리 던져두던 저를 당신은 언제까지 지켜보셨는지요.

자주색 우산은 지난주에 버릴 수 있었는데 종일 내린 비가 밤에도 이어져 아까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답니다.

일기 예보가 소나기라고 했어요. 천변 어딘가에 우산을 두고 오게 된다면 저는 당신께 보내는 문장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천변엔 제초시기를 넘겨 웃자란 김수영 시인의 풀들이 초록 물결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의지하는 무엇도 없이 바람과 비에 저항하지 않는 풀들입니다. 언제라도 비바람이 원하는 자세가 되는 풀들은 존엄한 존재가 되어있더군요.

김효경

소설가
의정부문인협회회원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해 도망치다가 다리 아래에서 멈추는 긴 머리 여자를 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비가 그치기를 다리 밑에서 기다리는 동안 묵언주의자의 호흡과도 같은 고요함을 느꼈지요.

서로 다른 이유로 우산 주인들이 떠나고 쌓여있는 우산을 버리기로 했어요. 누가 봐도 탐나는 품질이 좋은 우산을 서점에 갔다가 화장실에 두고 가볍게 나왔었지요. 그런데요 저를 다급하게 부르며 쫓아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버리는 일은 소꿉놀이 같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시작은 그렇게 실패하고 말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변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던 긴 머리 여자에게 자주색 우산을 쥐어주고 싶었는데 더 이상 우산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나기는 그쳤는데 기억력이 훌륭한 자주색 우산은 천변에 버려지기 전에 오히려 저를 잡아끌어 집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러면 당신은 답장을 기다릴 수 없을 겁니다.

오늘밤 당신은 또 다시 붉은 옷을 입고 제게로 오시나요? 제가 모르는 당신의 상실을 이번엔 들을 수 있을까요?

해놀이

장르 : 시

너와 나는
한걸음 차이
한걸음 다가서면
한걸음 뒤로 물러서고
한걸음 뒤로 물러서면
한걸음 다가서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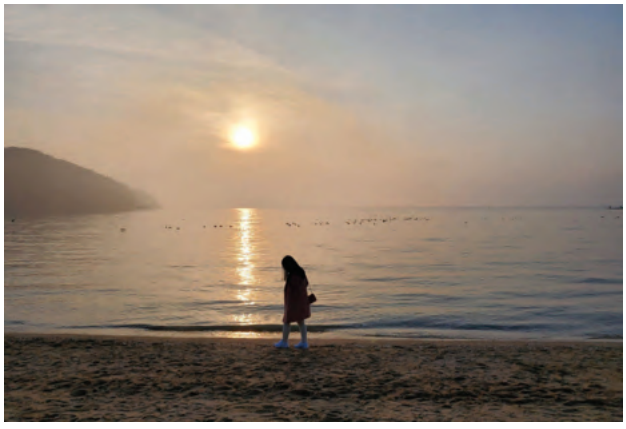
아침 눈을 뜨고
너를 반기는 그곳에서
어둠이 들 때까지
내 가는 길목마다
나를 바라고 서 있다

말없이 보낸 세월을
나 보다 더 기억하고 있을 너는
내 표정 하나로
나를 위로 한다

너와 나는 한걸음 차이
좁혀지지 않는 거리
그 거리만큼
내 인생에 온도가 올라간다.

나윤희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사무국장
제7회 두산예술상 시분문 우수작품상 수상.
민들레 동인〈바람이고 싶어〉외1집~10집,공저.
〈시인의 눈물〉저서.



詩 한 줌이 너였다가

장르 : 시

수많은 너의 너 중에
함께한 지난 겨울
벽난로의 따스함과 눈 위에 새겨진
하얀 이름이 너였다가
아주 먼 데서 오랫동안 천천히 오고 있을
운명 같은 기다림이 너였다가
먹먹하다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보다 더 밝은
이름을 갖지 못한 별자리를 아무리 외워보아도
하루에 세 번 식후 30분마다
늘 삼키는 것이 너였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에게 돌아가지 않으리
선득선득 생선 가시처럼
목 끝에 치밀어 오르는 무엇이 너였다가
별이 하나 뜨고
여차여차 떠오르는 별 또 하나가 너였다가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있는
쥐똥만 한 詩 한 줌이 너였다가

임영만

연세대학교졸업
– 한국문학예술 (말라죽은 선인장 과
카인의 노래 / 점박이귤빛부전나비) 등단
– 중원문학상 수상
(프로이트 무의식에 관한 고찰)
– 서해종합건설 공공사업부장
– 의정부문인협회 소속
– 시 집
[서로 등이 되어] [늪지 일기]
[신화의 땅] [풍장] [다시 이 자리에]
[명왕성에서 온 스팸메일]
[직선 혹은 곡선으로]

비 맞아도 괜찮아

장르 : 수필

윤 정

의정부문인협회 회원

오래전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은이는 영화공짜표가 생겼다고 함께 가자고 했다. 우리는 단짝이었고 매일 만나면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열여섯의 학생이었다. 영화관 앞에서 곧 만날 테지만 공짜 영화를 본다는 기대감에 한껏 들떠 나는 편지를 썼다.

-집에 가서 뜯어 봐.

나는 영화관 앞에서 은이에게 편지를 주었다. 상영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서 우리는 영화관 뒤편에 있는 문방구에 들렀다. 은이는 누군가에게 쓴 편지에 붙일 우표를 샀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일까. 한쪽 벽에 걸린 그림엽서를 훑어보는 척 했지만 은이의 편지가 자꾸 신경 쓰였다. 문방구 앞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데 봉투 위로 빗물이 튀었다.

매표소 앞에서 가방을 뒤지던 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영화표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당황스러웠다. 뭔가를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던 은이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편지를 넣을 때 우체통에 영화표가 딸려 들어간 것 같다고 했다. 비가 전보다 거세게 내리고 있는데 은이는 우산도 켜지 않은 채 뛰었다.

은이는 우체통 옆에 쓰여 있는 우편물 수집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그날의 우편물 수집은 이미 끝난 후였다. 은이의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청바지도 젖어 얼룩덜룩했다. 우산을 썼지만 뛰느라 빗물이 튄 내 바지 아랫단도 축축했다. 문방구 차양막 아래로 더러운 빗물이 흘러내렸고 우체통도 빗물을 맞으며 젖고 있었다. 우리는 빨간 우체통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냥 집으로 가야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은이가 가자고 했다. 우산을 펴려는데 은이가 내 손을 잡아끌었다.

-비 맞아도 괜찮아.

은이는 영화관 쪽으로 뛰었다. 3층에 있는 영화관 사무실에 가서 영화표에 대해 말할 거라고 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우물쭈물 거리고 있는 나를 향해 은이는 빨리 따라오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할 수없이 나는 은이를 따라 갔다. 젖은 바지 때문에 계단을 오르는 발길이 무거웠다.

영화관 건물 옥상에 지붕이 낮은 사무실이 있었다. 슬레이트 지붕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다. 사무실엔 낡은 책상 하나가 있고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아저씨가 회전의자에 앉아 있었다. 은이는 자초지종을 말했다. 아저씨는 뭔가 마뜩치 않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젖은 우산 밑으로 흘러내린 빗물이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빗소리에 섞인 은이의 말소리가 귓가에 앵앵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도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저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짧은 시간. 그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굵은 빗줄기가 내 속을 사정없이 두드리는 것 같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침에 빗소리를 음악 삼아 은이에게 편지를 쓸 때만해도 좋았는데. 은이는 우표까지 붙이며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그 편지만 아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별의별 생각이 머리를 들쑤셨다.

뚱한 표정의 아저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우리말을 안 믿는 거야. 아저씨 와이셔츠에 걸린 넥타이가 내 목을 조이는 것 같았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낡고 좁은 사무실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밖으로 뛰어 나가고 싶었다. 뒷걸음질 치며 은이의 손가락 끝을 잡아 끌 때 아저씨가 일어났다.

-그래. 내려가 보자.

영화관으로 함께 내려온 아저씨는 매점에서 사이다를 사서 하나씩 건네주었다.

-고맙습니다.

은이가 씩씩하게 인사했다. 용기 있게 영화관 사무실로 달려간 은이가 나는 대단하게 보였다. 나는 쭈뼛거리며 고개만 숙였다.

그날 본 영화가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젖은 우체통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던 은이와 나, 빗속을 달리던 우리, 그리고 아저씨가 사 준 사이다의 톡 쏘는 맛을 기억할 뿐이다. 컴컴한 영화관에서 우리는 사이다 병에 꽂은 빨대를 하나씩 물고 탄산의 아릿함을 즐겼다. 비는 좀 맞았지만, 그래서 머리도 엉망이고 옷도 축축했지만 사이다 한 입 마실 때마다 짜릿한 기분에 젖어들었다.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옷은 다 마르고 비는 그쳐 있었다.

며칠 뒤 어떤 편지가 나에게 당도했다. 은이가 영화표와 함께 우체통에 넣은 그 편지였다. 우체통에 넣은 편지가 나에게 올 것이란 상상은 하지도 못했다. 매일 학교에서 마주하니 우표를 붙여 주소지로 편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나는 하지 않았다. 은이가 보낸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영화를 보며 마신 사이다의 짜릿함이 내 몸 어딘가에 전달되는 듯 흥분되었다.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표가 붙은 편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빗물에 튀어 약간 번진 내 이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늘 받는 편지지만 우리 집으로 도착한 편지는 색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편지를 받고 즐거워 할 나를 상상하며 우표를 붙이던 은이도, 분명 즐거웠을 것이다.

똑같은 일상에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새로운 생각과 시도가 아닐까. 은이의 편지에 나는 즐거웠고 은이의 용기 있는 시도 때문에 나는 사이다를 마시며 영화를 볼 수 있었다. 새로운 것은 없다. 다만 새롭게 생각해 보는 사고와 부딪쳐 보는 일만 있을 뿐이다. 비를 맞고 옷도 젖었지만 영화와 함께 사이다를 덤으로 얻었으니 말이다.

섬농(纖農) 76 × 26cm 한지에 수묵

김은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개인전2회 초대 및 단체전 다수
한국미술협회 문인화 초대작가
경기미협 초대작가 · 운영위원
의정부미협 초대작가, 운영 · 심사위원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23 302동 1103호
M. 010-3703-0135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F20호 Oil on canvas

박국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2002년 제 1회 개인전 (의정부 예술의 전당)
2004년 MBC 사람, 사진으로 쓰는 이야기, KTV 한국,한국인 방영
경기 예술 공로상 수상
2010년 제 6회 개인전(의정부 여성비전 센타)
홍연갤러리 초대전, 국제창작 미술협회전(예술의 전당)
2014년~ 제 7회 개인전(서울 인사동 갤러리) 외 다수 단체전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69 금오 신도 브래뉴104-501호
M. 010-2008-1263

자작나무 150 × 60cm 2021년

손영락

경북 경주 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72~75)
개인전 23회, 그룹전 350여회
대한민국미술협회이사 역임 한국장애인미술협회 고문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85번길10 동일수정아파트 1동 202호
phone : 010-9333-8834
e-mail : kpshon@naver.com

황재유 장군 28 × 20 × 29cm 청자토

조병학

단국대학교 및 대학원 도예과 졸업
도예개인전 및 단체전 250여회
(주)삼영요업 디자인 & 개발실장
강진청자축제 및 남원국제도예 물레대회 심사위원(장)
2014~2016 (사)대한산업미술가협회 회장
2019~2020 (사)한국현대도예가회 제7대 이사장
인덕대학교 도자디자인학과 교수(1992~20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89 (일신건영@) 103-1901
M. 010- 2760-7604

빛속으로

강돈영

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청년분과위원회 부위원장
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기획간사
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기록간사
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현) 한국사진방송 전문기자
경기도사진대전 특선 수상
군산새만금한중국제사진촬영대회 금상 수상
선거사진공모전 금상 수상
춘천관광전국사진공모전 동상 수상
하남전국사진공모전 동상 수상

탤롤화산

이 두 희

한국 사진작가협회 정회원
한국 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정보간사
스톡 사진작가협회 정회원
경기북부사진연구회 사무국장

내소사설경

전호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부지부장역임
2017의정부관광사진공모전 우수상수상
가천대학교 영상미디어사진교육수료
강릉전국사진공모전입선외 다수수상
포토샵사관학교고급반수료
경기북부사진연구회 정회원

여름방학

조광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기획간사
회룡전국사진공모전 은상수상
용인관광사진공모전 가작수상
경기도 사진대전2회입선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정관장사진공모전가작수상
경기북부사진연구회정회원

COVER STORY
김광수 I 화합의 한마당
2021년 대한민국예술축전 대상 수상

발행처_ 사)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 의정부지회
발행인_ 김원기
주　소_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80번길 18
전　화_ 031)837-9000
팩　스_ 031)837-9011
홈페이지_ www.yechong.co.kr
이메일_ yechong477@hanmail.net
편집위원장_ 김문희
편집위원_ 이병예, 이미숙, 임응섭, 조한규,
유준식, 박영길, 이경윤, 김현주
디자인 · 인쇄_ 예원그라픽

※ 이 책은 의정부시에서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의정부예총에 있습니다.
의정부예총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